

“여순사건 진상규명·명예회복에 더 힘써야”

여순10·19범국민연대, 특별법 제정 1년 여순위원회에 촉구 “고령유족 기다릴 시간 없다”...법 개정에 지역사회도 동참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1주년을 맞아 여순위원회의 책임성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20일 여순10·19범국민연대는 특별법 제정 1주년 성명서를 통해 “특별법 제정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여순위원회가 더 책임성을 갖고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사회도 한마음으로 기존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에 동참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여순10·19범국민연대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은 ‘여순·순천10·19사건 진상규명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여순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날이

고, 7월 20일은 정부에 의해 제정 공포된 날이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1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법안을 공동 발의한 전남 동부권 의원들이 합동으로 ‘여순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란 포럼을 개최해 법 개정과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도 논했다. 토론에 나선 국회의원들은 “제기된 문제에 대해 법안의 미흡한 부분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법 개정을 통해서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범국민연대는 “7월 20일은 70여 년 동안 ‘반란’

이라고 손가락질받으면서 말도 꺼내기 힘들었던 여순사건이 대한민국의 역사로 우뚝 선 날이다”며 “특별법 제정 1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여순특별법 통과와 제정을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이어 “현재는 다소 미흡한 특별법이지만, 유족들의 피해 신고를 받고 사실조사와 진상규명 절차가 이뤄지고 있으나 신고 접수 상황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홍보와 피해접수 방안에 대해 여순위원회와 전남도의 적극적인 대응과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 공감과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범국민연대는 “특별법 국회 통과가 20여 년 동안 여러 차례의 발의에도 불구하고 국회 상임위법안 논의 및 결정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을 정도로 절

저외 외면당했고, 지역사회의 간절한 염원과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고령의 유족 뜻에 따라 우선 통과에 초점을 맞추다 미흡한 상태로 제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범국민연대는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개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논의 필요하고 얻어진 결과를 공문화해야 한다”며 “지역사회의 법 개정 동참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최경필 범국민연대 사무처장은 “제주4·3특별법은 20여 년 동안 8차례 개정으로 올해 6월부터 보 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지만, 고령의 여순사건 유족은 그럴만한 시간이 없기에 주어진 시간에서 결과를 얻기 위해서 특별법 개정과 관련한 지역사회 논의와 공문화가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27일 개봉 영화 ‘한산’ 여수 돌산읍서 촬영 눈길

오는 27일 전국에서 개봉하는 영화 ‘한산 : 용의 출현’이 여수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여수시에 따르면 김한민 감독의 영화 ‘한산 : 용의 출현’의 제작사인 (주)빅스톤픽처스는 2020년 6월부터 돌산읍 진모지구에서 야외 세트장(사진), 컴퓨터 그래픽 촬영장, 판옥선, 포구마을, 미니어저 세트장 등 55억원 규모의 촬영장을 건립하고 돌산과 남면 등지에서 촬영을 이어왔다. 시는 영화 제작을 위해 지난 2020년 ㈜빅스톤픽처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경제 인센티브로 3억원을 지원했으며 영화 관계자의 숙박비와 식비 등으로 약 5억원의 지역 내 소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 개봉 이후 제작사는 여수시 관내 영화관에서 ‘시민 초청 상영회’를 개최하고 감독과 출연배우의 무대 인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한산 : 용의 출현’은 역대 최고 흥행 기록을 세운 ‘명량’의 후속작으로 명량해전 5년 전, 진군 중인 왜군을 상대로 조선을 지키기 위해 필사의 전략과 패기로 몽친 이순신 장군과 조선 수군의 ‘한산해전’을 그린 작품이다. 박해일, 변요한, 안성기, 손현주, 김향기 등이 출연한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여수시, 일상회복지원금 30만원 준다

시장직 인수위, 추석전까지 지급 83개 공약·20대 중점과제 선정

민선 8기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일상 회복지원금으로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40여 일간의 활동을 마치고 19일 여수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수위 활동 결과를 보고했다. 인수위는 85개 공약 가운데 1호 공약으로 제시했던 일상 회복지원금을 추석 전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일상 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은 840억원으로 지난해 쓰고 남은 예산 일부와 추가로 거둬들인 세금 등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공약 가운데 ‘관광세·입도시세세율 발굴 복지카드 지급’과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여수유치’ 공약은 철회하고 83개 공약과 20대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20대 중점 과제는 ▲ 자치분권형 시민참여 플랫폼 구축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강화 ▲ 박람회 정신계승 ‘박람회장 공공개발’ 조속 추진 ▲ 2026 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 ▲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33) 유치 등이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인수위는 시민 제안사항 196개를 세밀히 살펴 일부를 반영하고, 민선 7기에서 지역 이슈가 됐던 주요 사업과 민원 현장도 방문해 문제점을 파악해 대안도 제시했다. 학동 청사 증축 등 분산된 시청사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학동 청사와 여서 청사를 기준으로 양청사 체제로 흡수된 실과 및 사업소 등을 집중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용역 결과 울촌 도성마을이 유력시었던 여순사건 평화공원은 역사성과 인명피해 등 종합 고려한 용역을 다시해 도성마을을 포함한 재검토 안을 내놨다. 인수위 측은 “인수위원·자문위원들이 소명 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6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 39일 동안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시민이 행복한 여수를 만드는 민선 8기 시정의 밑그림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완석 인수위원장은 “민선 8기 여수시정의 디딤돌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공직자들은 보고서에 제시된 의견들이 시민과 시장의 뜻이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창의적인 행위로 성실하게 반영·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선 8기 여수시장직 인수위의 보고서는 조만간 백서로 발간돼 공개할 예정이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구례군, 지리산케이블카 설치 산청군과 손 맞잡다

김순호 구례군수, 4개 시·군 협력 최적 방안 공동 건의 제안

구례군과 산청군이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구례군에 따르면 김순호 구례군수는 18일 산청군 이승화 군수와 만나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사진> 지난 6월 환경부는 구례군 단독으로 신청한 구례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공익성·환경성·기술성의 부적합을 사유로 반려처분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2012년부터 이어져 온 환

경부의 지리산권 4개 시·군 1개 노선 합의 요구사항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상황이다”며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지리산권 4개 시·군이 적극 협력하여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환경부에 공동 건의하자”고 이승화 산청군수에게 제안했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힘을 합쳐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답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곡성군, 휴가철 맞아 21~22일 농촌관광·휴양시설 안전 점검

곡성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1일과 22일 양일간 농촌관광·휴양시설에 대한 안전 및 방역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을 비롯한 농촌관광시설 총 114개소로, 오는 29일까지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군은 먼저 소방서 및 전기·가스 전문가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관광농원과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33개소에 대해 전문적인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 외 농어촌민박 78개소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해당 사업장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크게 안전 관리 상태, 화재 안전 관리, 위생 관리 실태 등 세가지다. 점검 결과 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곡성=박종태 기자 pit@kwangju.co.kr

고흥 ‘수호천사 건강미’ 전남 10대 브랜드쌀 2년 연속 선정

고흥군은 흥양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생산·가공한 ‘수호천사 건강미’가 2022년도 전남도 고품질 쌀 10대 브랜드에 2년 연속(총 9회)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진> 전남도 고품질 쌀 10대 브랜드 선정은 전남도 주관으로 농업기술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 지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7개 전문기관으로부터 품종 혼입율, 식미평가, 품질평가, 잔류농약 및 중

금속 등에 대한 심층평가 후 최종 결정된 것이다. ‘수호천사 건강미’는 각종 미네랄이 풍부한 해창만 간척지에서 정정해역의 해풍을 받고 자란데다 무농약, EM, 당밀농법으로 전량 계약재배되고 있으며, 흥양농협에서 가공, 유통까지 전문적으로 관리해 밥맛이 우수한 고품질 원전미로 소비자의 호평을 받고 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금남새마을금고 사옥 임대 및 특판 안내

- 1 반경 1km내 아파트 및 오피스텔 7000여 세대 상권유입 가능
- 2 아시아문화전당 인접, 예술의 거리 및 음식의 거리 방문 고객 확보
- 3 사옥 5층 문화센터 상시운영 (골프클럽, 요가, 캘러리가방고객 확보)
- 4 지하철 2호선 개통시 접근성 양호, 유동인구 폭발 증가



임대 안내			
층	호실	임대면적	호별 위치도
1	101호	27평	1층 101, 102, 103
	102호	40평	
	103호	51평	
2	201호	27평	2층 201, 202, 203, 204
	202호	28평	
	203호	43평	
	204호	82평	
3	301호	금남플라자치과	3층 301, 302, 303
	302호	72평	
	303호	83평	
4	401호	103평	4층 401, 402, 403
	402호	72평	
	403호	83평	
5	501호	MG 문화센터 (캘러리 대관 환영)	
	502호	MG 골프클럽 (회원 대 모집)	

무궁무진 MGM 정기예탁금 1년 3.3%

고이율 입출금 통장
개인용 위한 자신탄민자유예탁금 최고 2.2%
사업자를 위한 등록기업자유예탁금 최고 2.5%

MG골프클럽 특가

구분	이용 기간	정상 이용료	금남새마을금고 이용자 할인 특가 (원)		
			30점 이상 (10%)	40점 이상 (15%)	50점 이상 (20%)
정기회원	1개월	200,000	180,000	170,000	160,000
	3개월	570,000	513,000	484,500	456,000
	6개월	1,080,000	972,000	918,000	864,000
	12개월	2,040,000	1,836,000	1,734,000	1,632,000

* 이용자 할인 특가 조건 문의 (영업지원팀)
* 특가비 - 월 10,000원 (6개월 이상 등록자 무료)
* MG체크카드 이용 시 이용금액의 5% 추가 할인 (최고 할인 금액 2만원)
* 유명 골프 프로 레슨 중